

영암 농산물 ‘클로렐라농법’ 실증 재배

郡, 클로렐라 급여 오리 시식 평가 큰 호응

작목생육·경제성 분석…우수 사례 확대 방침

영암군은 14일 전동평 영암군수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클로렐라농법을 적용한 육용오리 시식평가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이 현재 실증 추진하고 있는 클로렐라 농법은 주산작목을 대상으로 클로렐라의 활용 가치를 검증해 우수사례를 발굴,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영암군은 작물분야로 무화과, 고구마 등 8개 주요 작목에 19농가를, 축산분야에서는 육용오리, 닭 등 3농가를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실증재배시범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각 작목 별로 전 생육기간에 걸쳐 클로렐라 살포(급여)를 다르게 하면서 효과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오리시식회는 클로렐라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로렐라 급여와 비급여 오리를 구분해 백숙, 로스 등 요리방법별로 시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증제량 조사·검사 후 성과를 분석하고 또한 목포대학교에 용역 의뢰하고 있는 무화과 등 8개 작목에 대해 클로렐라 살포에 따른 작물 생육상태의 변화분석과 수확 후 당도, 수량성 등 상품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정밀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클로렐라는 광합성을 하는 담수녹조

류 미생물로 기능성 식품,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이다. 농촌진흥청 등 실험결과에 의하면 생육촉진, 저장성향상, 수량증대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주산작목에 대해 클로렐라농법의 친환경농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판매시장 확대 및 영암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영암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이병영기자



영암군은 14일 전동평 영암군수 및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로렐라농법을 적용한 육용오리 시식평가회를 실시했다. /영암군 제공

함평 대표먹거리리 한우 생비빔밥
‘5첩 반상 한정식’ 탈바꿈 시도

함평군 대표 먹거리인 ‘한우 생(生)비빔밥’이 5첩 반상 한정식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함평식 한우비빔밥 특화전문 명인과정’ 개강식을 열고 특화메뉴개발 등 함평 생(生)비빔밥 브랜드 강화에 본격 나섰다.

‘함평식(式) 생비빔밥 5첩 반상’을 비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지역 모범 음식점을 포함한 비빔밥 취급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한우 생비빔밥 한상메뉴 개발, 경영 및 홍보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전문지식과 인지도를 갖춘 대학교수·식당운영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해 상처림기법, 메뉴상품화, 스토리개발, 식품산업연계 마케팅개발, 식재관리 구축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함평=신재현기자



함평교육청 ‘섬표’ 프로그램 호응

함평교육지원청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추수상담과 및 희망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캔들 공예를 활용한 ‘섬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함평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인 김고은(마름달 공방) 강사를 초빙해 캔들 공예 체험, 향수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함평교육지원청 제공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속도

사업비 140억원 투입 읍 옛 공공도서관 부지에 조성

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등 2021년 완공 예정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 해남군이 출산과 양육, 돌봄 등 통합적 가족지원의 기능을 수행할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활 SOC복합화 시설인 어울림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40여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남읍 옛 공공도서관 부지에 조성된다.

센터 내에는 공립해남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게 되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주민 편의 및 가족지원의 종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낯설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해 육아정보를 나누는 거점으로 젊은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실을 비롯해 육아 가정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동네부엌’ 군민들의 쉼터로 개발될 ‘동네카페’ 등도 들어선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의 건립으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의 성과를 넘어 보

육과 양육, 가족지원의 통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에도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합계출산율 1위의 성과를 이어 양육과 돌봄, 가족지원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화 시설이 필요한 단계이다”며 “어울림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구 정책의 큰 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 군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해남군은 앞으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청년 유입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남=박필용기자

진도군, 오늘 진도개 광복절 특별공연

진도개테마파크서 공연·경주·어질리티 등 선포

진도군은 15일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활용한 광복절 특별 공연을 실시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특별 공연은 진도개의 우수성을 직접알 수 있는 진도개 공연, 경주, 어질리티 등이 펼쳐진다.

또 진도개테마파크 내에 사육장, 진돌이썰매장, 홍보관, 방사장, 돌아온 백구 토끼여리 공원 등에서 진도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진도군은 진도개의 영민함과 우수한 재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진도개테마파크에서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세권기자

올해 진도개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총 2회 실시하며 일요일 주말에는 오후 1시에 개최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진도개테마파크가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개테마파크에는 평일에는 300여명, 주말에는 6~700여명의 관광객들이 진도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강진 작두콩차’ 추석 선물세트로 인기

비염·피부·위장질환·당뇨 등 효능 탁월

강진군의 작두콩차 선물세트가 소비자들에게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작두콩차는 비염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위장질환, 당뇨,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음용법 또한 간단한데 70~80도 정도의 찌꺼기를 이용해 2~3분정도 우려내는 것이 적당하다.

잘 씻어 말린 뒤 주문량에 따라 튀기만 하면 되는 작두콩차는 약효가 뛰어나 뿐만 아니라 간편 보관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아 재배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거두고 있는 강진군의 효자 상품이다.

작두콩차 판매가격은 강진도깨비농장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작



두콩차 (80g) 1만원, 작두콩차티백 (1팩=1g·10개) 5천원, 선물세트 3만7천원, 강진해찬여주농조합법인의 작두콩차 (100g) 1만원에 초록민음직거래센터 (061-433-8844)와 강진초록민음소평몰 (http://gangjin.center)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밖에도 추석 명절을 대비해 강진군에서 정성껏 키운 다양한 농수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센터와 소평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토지 5000평 매매 지리산 관광온천 지구

- 계획관리지역, 전망좋은
- 답 3300평, 임야 1355평, 전 330평
- 송원리조트(블루썬) 옆, 현 상업 나대지 상태
- 지리산 골프장/케이볼가 유치중
- 모든업종 개발가능
- 감정/시세 - 약 30억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